

허재 감독 두 아들 '허훈·허웅', 프로농구 올스타 팬투표 1·2위

동생 허훈, 2년 연속 올스타 최다 득표

SNS 채널 올스타 선수와 팬 직접 소통

‘농구 대통령’ 허재 전 국가대표 감독의 두 아들 허훈(26·부산 KT)과 허웅(28·원주 DB)이 나란히 프로농구 올스타 팬 투표 1·2위를 차지했다. KBL은 지난달 11일부터 4일까지 실시한 2020~2021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올스타 팬 투표 결과 허훈이 총 투표수 7만7545표 가운데 3만2642표를 획득, 1위에 올랐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올스타 팬 투표에서 1위에 오른 허훈은 2년 연속 최다 득표의 기쁨을 누렸다. 2019~2020시즌 35경기에서 평균 14.9득점 7.2어시스트 2.6리바운드의 성적을 거둬 정규리그 최우수선수

(MVP)를 차지한 허훈은 2020~2021시즌 25경기에서 평균 33분39초를 뛰며 평균 14.6득점 7.5어시스트 3.3리바운드를 기록 중이다. 허훈은 이번 시즌 평균 어시스트 부문 선두를 질주 중이고, 국내선수 평균 득점 부문에서 3위에 올라있다. 형 허웅은 3만1421표를 얻어 동생의 뒤를 이었다. 허웅은 2015~2016시즌과 2016~2017시즌 올스타 팬 투표에서 2년 연속 1위에 오른 바 있다. 프로농구에서 형제가 올스타 팬 투표 1·2위를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시즌 국내선수 평균 득점 1위

(15.4득점)를 달리고 있는 송교창(25·전주 KCC)이 3만1217표를 획득해 3위에 올랐다. 4위는 3만914표를 얻은 양홍석(24·KT)의 차이가 났고, 김시래(32·창원 LG)가 2만7938표로 5위에 이름을 올렸다. 2019~2020시즌 올스타 팬 투표에서 허훈과 김시래, 양홍석, 송교창, 이정현(KCC)이 1~5위였는데, 이 중 4명이 또다시 5위 내에 이름을 올리며 변하지 않은 인기를 과시했다. 이대현(인천 전자랜드)과 박준영(KT), 문성근(안양 KGC인삼공사), 아이제이 히스(서울 삼성), 타일러 데이비스(KCC) 등은 처음으로 올스타 24인 명단에 드는 기쁨을 맛봤다. 올스타 팬 투표에서 10위에 오른 캐디 라랜이 부상으로 LG를 떠나면서 25위에 오른 김현수(삼성)가 최종 24

인 명단에 포함됐다. 올해 올스타전 경기와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열리지 않는다. 프로농구 출범 원년인 1997년부터 매 시즌 치러온 올스타 경기가 취소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올스타전 취소에도 예년처럼 팬 투표를 실시한 KBL은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14~18일 올스타 휴식기 동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널을 활용해 올스타 선수와 팬이 직접 소통하고 참여하는 기획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올스타 팬 투표로 선정된 24명의 선수들은 올스타 휴식기 이후 올 시즌 올스타전 로고가 새겨진 기념 패치를 소속팀 유니폼에 부착하고 잔여 시즌을 치른다.



서선욱기자 왼쪽부터 허웅·허훈.

광주FC 최만희 대표·전남 드래곤즈 이광수 사장 선임

구단 안정화·선수단 중심 효율적 운영체계 확립



프로축구 광주FC와 K리그2(2부리그) 전남 드래곤즈는 각각 최만희 신임 대표이사과 이광수 대표이사 사장을 선임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광주FC·전남 드래곤즈 제공)

프로축구 광주FC와 K리그2(2부리그) 전남 드래곤즈가 각각 최만희 신임 대표이사과 이광수 대표이사 사장을 선임했다. 광주FC는 임시주주총회와 제44차 이사회를 열고 최만희 광주축구협회장 당선인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기로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대표이사 선임은 정월주 대표이사의 사의 표명에 따라 이뤄졌으며

최 신임 대표이사는 이 날부터 단장직을 겸한 상근직 대표이사로서 공적 업무에 들어가게 된다. 구단은 모든 법인회 작업을 최 신임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하고, 구단의 안정화와 선수단 중심의 효율적인 운영체계 확립에 집중할 방침이다. 광주 출신인 최 신임 대표는 축구 선수와 지도자, 행정가를 두루 거쳤다.

또 전북현대 감독(1997~2001)으로 있을 당시 김호영 현 광주FC 감독과 인연이 있었던 지난 2011년 초대감독을 지냈다. 이와함께 광주FC는 정성훈 수석코치와 홍성우 필드코치·이승준 GK·이거성 피지컬 코치 등 4명을 영입해 코치진 구성을 완료했다. 2부리그로 추락한 전남도 제12대 이광수 대표이사 사장을 선임하고 도약을 노린다. 이광수 사장은 해남출신은 1992년 포스코에 입사해 인사노무 분야 등 주요 보직을 거쳤으며 광양제철소 인사노무그룹장과 행정설비그룹장을 역임했다. 이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전남 축구팬들의 염원은 K리그1(1부리그) 승격이다”며 “전경준 감독과 선수단, 사무국이 하나돼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미희기자

입대 미룬 KIA 최원준, 풀타임 주전·규정타석 3할 목표



KIA 타이거즈 외야수 최원준(24)이 데뷔 첫 풀타임 주전과 규정타석 3할 타율에 도전한다. 2016년 입단 이후 한번도 퓨처스 팀에 있던 길이다. 작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진짜 주전이 되겠다는 것이다. 입대도 미룬 최원준의 새로운 도전이다. 최원준은 2020시즌 데뷔 이후 가장 뜨거웠다. 123경기에 출전해 412타석을 소화했다. 타율 3할2푼2리, 35타점, 14도루, 72득점을 올렸다. 장타율 4할2푼1리, 출루율 3할8푼7리, OPS .808를 기록했다. 412타석에서 삼진이 35개에 불과하

다. 데뷔 이후 가장 높은 출루율을 기록, 타이거즈 리드오피 계보를 이을 수 있다는 능력을 보였다. 특히 작년 단 한번도 퓨처스 팀에 내려가지 않고 1군에 머물렀다. 데뷔 처음이었다. 그러나 풀타임 주전은 아니었다. 5월 중순부터 6월까지 백업 요원이었다. 개막전은 중견수로 출전했으나 타격과 수비 부진이 이어지며 김호영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김호영이 부상과 부진으로 흔들리자 이창진이 자리를 물려받았다. 야구에 회의감을 보일 정도로 극심

한 고민에 빠졌던 시기였다. 이창진이 부상으로 낙오하자 그때야 자리를 인수했고 필렐 날았다. 최형우와 맷 윌리엄스 감독의 조언을 받은 것이 주효했고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다. 시즌을 마치고 군입대를 놓고 고민했으나 1년간 미루기로 했다. 윌리엄스 감독의 요청을 받은 것도 있었지만 올해의 기회를 이어 주전으로 풀타임을 뛰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 최원준의 외야 포지션은 다소 유동적이다. 김호영이 중견수로 자리잡으면 좌익수 혹은 우익수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부상에서 돌아오는 이창진도 변수이다. 그럼에도 최원준은 외야수 한 자리를 무조건 맡을 것으로 보인다. 데뷔 초반 수비 때문에 내야와 외야에서 자리를 잡지 못해 방황했지만 이제는 어엿한 외야 주전이 된 것이다. 수비력도 일취월장했다. 올해는 풀타임 외야수전으로 나선다면 또 다른 목표물이 생긴다. 아직 한 번도 이루지 못한 규정타석 첫 3할에도 도전한다. 발도 빠르고 경험이 쌓이면서 도루수자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에게 2021시즌은 타이거즈 리드오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시즌이다. 김민정기자

“당구장 운영 어려운 눈물”

서현민, 프로당구 첫 우승

PBA-LPBA TOUR 3차전 챔피언십 우승



4일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열린 PBA-LPBA TOUR 제3차전 NH농협카드 챔피언십 대회 준결승전에서 결승전에 진출한 서현민이 환호하고 있다. (사진=PBA 투어 제공)

15-6으로 먼저 1세트를 차지했다. 2세트에서는 7이닝만에 첫 득점을 했지만 하이런 9점으로 추격에 성공하며 15-12로 승리했다. 3세트를 마친 서현민은 4세트에서 에버리지 3,750을 기록하며 15-11로 승리를 거뒀다. 서현민은 이번 시즌까지 8강에서만 3번 좌절했지만 이번 대회서는 8강의 벽을 넘고 생애 첫 우승을 기록했다. 서현민은 “진짜 간절하게 우승을 원했기에 우승 후 눈물이났다. 당구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영입이 어려워지면서 우승이 간절했던 것도 있다. 그만큼 연습도 많이 했다”며 소감을 밝혔다. 올해 류스쿨로 처음 PBA에 합류한 준우승자 서삼일은 아쉽게 2위에 그쳤지만 PBA의 새로운 돌풍을 일으켰다.

서삼일은 “당구는 젊은 사람의 스포츠가 아니다. 나이가 51세지만 실력은 계속 늘고 있다. 앞으로 체력관리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쉽게 4강에 그쳤던 비를 위 마즈는 에버리지 3,750을 기록해 웰빙 톱랭킹 톱 에버리지의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민정기자

K리그2 전남, FC서울 출신 공격수 박희성 영입



프로축구 K리그2(2부리그) 전남 드래곤즈가 FC서울 출신 공격수 박희성(31)을 자유계약(FA)으로 영입했다. 전남 여자 출신인 박희성은 고려대 재학 시절 20세 이하(U-20), 23세 이하(U-23) 대표팀을 거치며 큰 기대를 받고 2013년 서울에 입단했다. 박희성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과 상주 상무에서 68경기 7골 11도움을 기록했다. 지난해엔 K3 김해시청으로 이적해 리그 21경기 9골로 팀의 K3리그 우승과 K3리그 챔피언십 우승을 이끌었다. 박희성은 K3에서의 활약을 바탕으로 전남에 입단하며 1년 만에 K리그로 복귀했다. 박희성은 “팀이 1부리그로 승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각오를 전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토트넘 역사 된 손흥민...이젠 유럽 무대 150골 사냥

손흥민, 유럽 무대 총 418경기서 149골 기록 중



새해 축포로 토트넘 홋스퍼 100골 클럽에 가입한 ‘손에이셔널’ 손흥민(29)이 이번엔 유럽 무대 개인 통산 150호골에 도전한다. 토트넘은 6일 오전 4시45분(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챔피언십(2부리그) 소속 브렌트포드와 2020~2021 카라바오컵(리그컵) 준결승을 치른다. 손흥민은 지난 2일 리즈 유나이티드와의 2020~2021 잉글랜드 프

리미어리그(EPL) 17라운드 홈 경기에서 1골 1도움을 기록, 토트넘의 3-0 완승을 이끌었다. 전반 43분 해리 케인의 크로스를 오른발 논스톱 슈트로 마무리한 손흥민은 토트넘 입단 후 253경기 만에 100호골에 성공했다. 손흥민은 토트넘 소속으로 EPL 65골,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12골, 리그컵 3골,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14골, 유로파리그(예선포함) 6골을 기록, 100

호골을 완성했다. 토트넘 구단 역사상 100골을 넣은 18번째 선수다. 손흥민은 EPL에서 12골로 득점 랭킹 단독 2위다. 선두 모하메드 살라(13골·리버풀)와는 1골 차이이다. 현재 페이스라면 아시아 선수 최초의 EPL 득점왕 탄생도 결코 불가능은 아니다. 토트넘 역사에 된 손흥민의 다음 목표는 자신의 유럽 무대 통산 150호골이다. 2010~2011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함부르크에서 유럽 무대에 데뷔한 손흥민은 레버쿠젠(독일)을 거쳐 2015년 8월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총 418경기에서 149골을 기록 중이다. 독일 분데스리가(41골), EPL(65골), 유럽클럽대항전(25골), 컵 대회(18골) 등에서 149골을 쏟아냈다. 지난 2019년 11월엔 한국 축구 전설인 차범근 전 감독의 한국인 유럽 무대 공식전 최다골(121골)을 경신했고, 지난해 10월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에서 차범근의 한국인 빅리그 최다골(98골)도 넘어섰다. 뉴스